

프롬프트에 대해서 묻고 따짐 Ask and Argue about the Prompt

최봉영 Choi Bongyoung

한국인문학연구회 이사장
Chairman, Korean Literature Research
Association

1. 프롬프트(prompt)	3.6.
1.1.	4. 내가 나를
1.2.	프롬프트 하는 일
1.3.	4.1.
1.4.	4.2.
1.5.	4.3.
1.5.1.	4.4.
1.5.2.	4.5.
1.5.3.	4.6.
1.6.	4.7.
1.7.	5. 내가 나를
1.8.	일깨우는 일
1.9.	5.1.
1.10.	5.2.
2. 사람이 무엇을 프롬프트 하는 일	5.3.
2.1.	5.4.
2.2.	5.5.
2.3.	5.6.
2.4.	5.7.
2.5.	
3. 내가 무엇을 프롬프트 하는 일	
3.1.	
3.2.	
3.3.	
3.4.	
3.5.	

요약

영국말 프롬프트(prompt)는 동사(動詞)로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도록 알려주는 것을 뜻한다. 이를테면 누가 연기를 할 때, 무대 뒤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도록 알려주는 것, 누가 연설을 할 때, 연단 앞에서 자막이나 메모나 그림이 무엇을 어떻게 하도록 알려주는 것, 누가 잠을 잘 때, 시계가 소리를 울려서 무엇을 어떻게 하도록 알려주는 것, 누가 컴퓨터를 쓸 때, 컴퓨터가 깜빡거리서 그곳에 무엇을 어떻게 하도록 알려주는 것은 모두 프롬프트 하는 것이다.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도록 알려주면 누가 바로 알아보고서 빠르게 반응하는 까닭으로 프롬프트(prompt)는 형용사(形容詞)로서 ‘재빨리’, ‘즉각적인’, ‘지체 없는’, ‘신속한’과 같은 뜻을 갖게 되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프롬프트(prompt)는 명사(名詞)로서 배우에게 대사를 상기시켜 주는 말이나 컴퓨터가 사용자에게 깜빡거리는 신호 따위를 뜻하게 되었다. 다음은 프롬프트를 소재로 사람이 무엇을 프롬프트 하는 일, 내가 무엇을 프롬프트 하는 일, 내가 나를 프롬프트 하는 일, 그리고 내가 나를 일깨우는 일에 관한 글이다.

Abstract

The British word *prompt* is a verb that means to tell someone what to do and how to do it. For example, when someone is acting, one is told what to do and how to do it behind the scenes. When someone gives a speech, subtitles, notes, or pictures can *prompt* them with what to do and how to do it. When someone is sleeping, a ringing alarm clock *prompts* them what to do. When using a computer, the computer blinks to *prompt* the user with what to do. These are all a *prompt*. When you *prompt* someone, that person immediately recognizes it and responds quickly. As an adjective, *prompt* has come to have meanings such as ‘nimble,’ ‘immediately,’ ‘without delay,’ and ‘quickly.’ Based on this, the word *prompt*, as a noun, came to mean a word that reminds an actor of his lines or a signal that a computer lashes to the user. The article will cover *prompts*, what people *prompt*, what I *prompt*, what I *prompt* myself, and what I remind myself of.

1. 프롬프트(prompt)

1.1.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도록 알려주면 누가 바로 알아보고서 빠르게 반응하는 까닭으로 프롬프트(prompt)는 형용사(形容詞)로서 ‘재빨리’, ‘즉각적인’, ‘지체 없는’, ‘신속한’과 같은 뜻을 갖게 되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프롬프트(prompt)는 명사(名詞)로서 배우에게 대사를 상기시켜 주는 말이나 컴퓨터가 사용자에게 깜빡거리는 신호 따위를 뜻하게 되었다.

1.2.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도록 알려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따라 하도록 알려주는 것이다. 이를테면 배우가 연기를 할 때, 무대 뒤에서 배우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도록 알려주는 것은 배우가 무엇을 어떻게 따라 하도록 알려주는 것이다. 배우는 필요한 경우에 무대 뒤에서 알려주는 무엇을 어떻게 그냥 따라 하면 된다.

다른 하나는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풀어내도록 알려주는 것이다. 사람이 인공지능을 부릴 때, 인공지능이 열어놓은 창에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하도록 알려주는 것은 인공지능이 무엇을 어떻게 풀어내도록 알려주는 것이다. 이 경우에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도록 알려주는 일은 두 가지 일이 하나로 어우러져 있다. 먼저 인공지능은 창을 열어 놓고서 사람에게 무엇을 어떻게 시키도록 알려주는 일을 한다. 사람은 이를 알아보고서 인공지능이 열어 놓은 창에 무엇을 어떻게 하도록 알려줌으로써 인공지능이 무엇을 어떻게 풀어내는 일을 하게 된다.

1.3.

오늘날 사람은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인공지능에게 무엇을 어떻게 풀어내도록 알려줄 수 있게 되었다. 사람이 인공지능에게 무엇을 어떻게 풀어내도록 알려주면 인공지능은 스스로 알아서 무엇을 어떻게 풀어낸다. 인공지능의 성능이 좋아지면서 무엇을 어떻게 풀어내는 일 또한 좋아지고 있다. 사람이 인공지능에게 무엇을 어떻게 풀어내도록 시키면 인공지능은 가진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한다. 더 나은 인공지능이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은 놀라움으로 크게 들썩거린다.

1.4.

인공지능은 사람이 시키는 것을 좇아서 일하는 까닭으로 사람이 인공지능을 부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이 무엇을 어떻게 풀어내도록 또렷이 알려주는 일이다. 사람이 얼마나 또렷이 알려주느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무엇을 어떻게 풀어내는 일이 크게 달라진다. 사람이 인공지능을 부려서 무엇을 어떻게 풀어내도록 시키는 일이 중요해질수록 인공지능에게 무엇을 어떻게 풀어내도록 알려주는 일, 곧 인공지능을 프롬프트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지게 되었다.

1.5.

사람이 인공지능을 프롬프트 해서 무엇을 어떻게 풀어내도록 알려주는 경우에 ‘사람’과 ‘인공지능’과 ‘프롬프트 하는 일’은 다음과 같은 일의 차림새를 갖고 있다.

1.5.1.

‘사람’은 인공지능에게 무엇을 어떻게 풀어내도록 알려주는 임자를 말한다. 이때 사람은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무엇을 어떻게 풀어내도록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이런 힘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만 인공지능을 만드는 일과 인공지능을 부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1.5.2.

‘인공지능’은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풀어내도록 알려주는 일의 대상을 말한다. 이때 인공지능은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풀어내도록 알려주는 것을 스스로 알아보고서 무엇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이런 힘을 가진 인공지능이 있어야,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풀어내도록 알려주는 것을 스스로 알아보고서 무엇을 어떻게 풀어내는 일을 벌일 수 있게 된다.

1.5.3.

‘프롬프트 하는 일’은 임자인 사람이 대상인 인공지능에게 무엇을 어떻게 풀어내도록 알려주면 인공지능이 스스로 알아보고서 무엇을 어떻게 풀어내는 일을 말한다. 이런 일은 임자인 사람과 대상인 인공지능을 둘러싸고 있는 온갖 것이 함께 해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런 까닭으로 사람이 인공지능을 프롬프트 하는 일은 그것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에서만 일어난다.

1.6.

사람이 인공지능에게 무엇을 어떻게 풀어내도록 알려주면 인공지능은 무엇이든 풀어내어 보여준다. 사람이 스스로 풀어야 할 문제를 인공지능이 대신해서 풀어낼 수 있게 되었다. 인공지능의 힘이 커지면 사람이 풀어내기 어려운 것이나 풀어낼 수 없는 것을 인공지능은 풀어낼 수 있다. 오늘날 바둑에서 수를 읽어내는 일에서 인공지능은 사람보다 크게 앞서고 있다. 사람들은 바둑을 두거나 배우거나 해설할 때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1.7.

사람이 인공지능을 부려서 무엇을 어떻게 풀어내도록 시키면 인공지능은 사람이 시키는 일을 그냥 그대로 좇아서 한다. 인공지능은 저를 부리는 사람에게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하면서도 어떤 불평이나 불만도 늘어놓지 않는다. 이런 까닭으로 사람에게 인공지능은 더없이 뛰어나게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고, 더없이 뛰어나게 착한 동료가 될 수 있고, 더없이 뛰어나게 멋진 우상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은 인공지능의 힘을 크게 키우는 일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

1.8.

사람들은 하기 싫은 일, 하기 힘든 일, 돈이 많이 드는 일과 같은 것을 인공지능에게 맡기고 싶어 한다. 사람들은 더 나은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더 많은 일을 맡기기 위해서 갖은 힘을 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공지능의 힘이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의 힘이 어느 정도에 이르면 사람이 인공지능을 부리기보다는 인공지능이 사람을 부리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1.9.

인공지능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샘플 속에서 사람이 제공하는 자료를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풀어내는 기계이다. 인공지능은 사람이 시키는 것을 따르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바탕'과 '까닭'과 '위함'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인공지능은 어떤 일을 풀어내는 점에서 사람보다 뛰어날 수 있지만 스스로 임자가 되어 잣대를 만들고 좇대를 키우는 일을 할 수 없다.

1.10.

인공지능의 힘이 커질수록 사람이 더 똑똑해질 수도 있고, 더 멍청해질 수도 있다. 또한 사람은 더 어질 수도 있고, 더 모질 수도 있다. 또한 사람은 더 행복해질 수도 있고, 더 불행해질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인공지능을 만들어 쓰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2. 사람이 무엇을 프롬프트 하는 일

2.1.

사람은 일찍부터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도록 알려주는 일에 익숙한 삶을 살아왔다. 이를테면 사람들은 사람이 사람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도록 알려주는 일, 사람이 동물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도록 알려주는 일, 사람이 귀신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도록 알려주는 일, 신령이나 귀신이나 하늘과 같은 것이 사람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도록 알려주는 일과 언제나 함께 해왔다.

2.2.

사람이 사람, 동물, 귀신 따위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도록 알려주는 것은 그것을 뜻대로 부리기 위해서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뜻대로 부려서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고자 한다.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뜻대로 부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이 사람을 뜻대로 부리려면 상대가 나를 따르도록 마음을 움직여야 하고, 사람이 동물을 뜻대로 부리려면 동물이 나를 따르도록 길을 들여야 하고, 사람이 귀신을 뜻대로 부리려면 귀신이 나를 따르도록 정성을 바쳐야 한다.

2.3.

사람들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도록 알려주는 일을 잘해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왔다. 사람들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도록 '그냥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 '가르쳐서 알려주는 것', '깨우쳐서 알려주는 것', '일깨워서 알려주는 것', '구슬려서 알려주는 것', '타일려서 알려주는 것', '매달려서 알려주는 것', '부풀려서 알려주는 것', '속여서 알려주는 것', '억눌러서 알려주는 것'과 같은 방법을 써왔다. 이런 일이 잘 먹혀들면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도록 알려주는 일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니 사람들은 가르치고, 깨우치고, 일깨우고, 구슬리고, 타이르고, 매달리고, 부풀리고, 속이고, 억누르는 것과 같은 일에 많은 힘을 기울인다.

2.4.

사람들이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도록 알려주는 것은 세 가지 것을 위한 일에 바탕을

두고 있다.

첫째는 내가 나를 위해서 남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도록 알려주는 것이다. 이를테면 강도가 저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알려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둘째는 내가 남을 위해서 남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도록 알려주는 것이다. 이를테면 행인이 남을 위해서 홍수로 다리가 끊겼으니 길을 돌아서 가라고 알려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셋째는 내가 우리를 위해서 너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도록 알려주는 것이다. 이를테면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아들에게 가족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어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고 알려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람들은 위하고자 하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렇게 일한 것의 ‘보람’을 갖는다.

2.5.

사람들이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도록 알려주는 까닭은 일이 벌어지는 낱낱의 경우를 좇아서 저마다 다를 수 있다. 이를테면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도록 알려주는 까닭은 <나의/너의/그의/-> 몸과 마음이 <괴로워서/즐거워서/아파서/무거워서/가벼워서/->, 또는 몸이 <쓰서서/배겨서/->, 또는 마음이 <기뻐서/슬퍼서/->, 또는 <내가/네가/그가/-> 배가 <고파서/불러서/차서/->, 또는 돈이 <많아서/적어서/없어서/->, 또는 공부를 <잘해서/못해서/->와 같은 경우를 좇아서 저마다 다를 수 있다. 이런저런 나름의 까닭으로 온갖 일이 끊임없이 벌어진다.

3. 내가 무엇을 프롬프트 하는 일

3.1.

사람은 무엇을 욕구하거나 욕망하는 일을 바탕으로 살아간다. 사람은 욕구하거나 욕망하는 일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온갖 것을 가지거나 쓰거나 버리는 일을 할 수 있다.

3.2.

사람이 무엇을 욕구하거나 욕망하는 일은 낱낱의 나에서 비롯하는 일이다. 낱낱의 나는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머리, 나의 맛, 나의 뜻을 가진 것으로서 저마다 따로 한다. 나는 나의 몸과 마음을 바탕으로 나의 맛과 나의 뜻을 좇아서 나의 머리가 돌아가고 나의 머리를 굴려서 내가 욕구하거나 욕망하는 온갖 것을 이루며 내 나름으로 살아간다.

3.3.

나는 욕구하거나 욕망하는 것을 이루면 성공으로 여기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로 여긴다. 나는 무엇이든 성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욕구하거나 욕망하는 것을 이루는 일에 관심을 집중한다. 나는 욕구하거나 욕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느끼고, 알고, 바라고, 이루는 일에 힘을 다한다.

3.4.

나는 욕구하거나 욕망할 때, 사람이나 소와 같은 것을 뜻대로 부려서 욕구하거나 욕망하는 것을 크게 키우고자 한다. 나는 이런 것을 뜻대로 부려서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든다. 나는 사람을 부려서 커다란 궁궐을 지을 수 있고, 가축을 부려서 커다란 목장을

이를 수 있고, 귀신을 부려서 앞날을 점치는 일을 꿈꿀 수 있다. 이런 까닭으로 나는 이런 것을 마주하게 되면 뜻대로 부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도록 알려주는 일을 피하게 된다.

3.5.

내가 욕구하거나 욕망하는 일을 이루어가면서 뜻대로 부리고자 하는 대상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로 나는 나를 뜻대로 부리고자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도록 알려주는 일을 한다. 나는 내가 나의 뜻을 알아볼 수 있다고 여기는 경우에 나를 뜻대로 부려서 무엇을 어떻게 이루고자 한다. 이를테면 나는 나를 뜻대로 부리고자 나에게 무엇이든 참고 견뎌야 한다고 알려주어서 내가 무엇이든 참고 견디도록 만들고자 한다. 또는 나는 나를 뜻대로 부리고자 시계가 아침 6시에 알람을 울리도록 맞추어서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한다.

내가 나를 뜻대로 부리려면 내가 나의 뜻을 잘 따라야 한다. 내가 나의 뜻을 잘 따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를 부리는 일에 힘을 쏟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힘을 쏟지 않는다. 나는 나를 뜻대로 부리는 일을 잘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끌어들인다. 나는 나를 뜻대로 부리기 위해서 일깨우고, 깨우치고, 다스리고, 달래고, 꾸짖고, 속이고, 때리고, 억누르는 것과 같은 일을 한다.

둘째로 나는 남을 뜻대로 부리고자 남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도록 알려주는 일을 한다. 나는 남이 나의 뜻을 알아볼 수 있다고 여기는 경우에 남을 뜻대로 부려서 무엇을 어떻게 이루고자 한다. 이를테면 나는 남을 뜻대로 부리고자 남에게 빌려 간 돈을 빨리 갚아야 한다고 알려주어서 남이 돈을 빨리 갚도록 만들고자 한다. 또는 나는 남을 뜻대로 부리고자 남이 자는 방에 시계가 아침 6시에 알람을 울리도록 맞추어서 남이 6시에 일어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한다.

내가 남을 뜻대로 부리려면 남이 나의 뜻을 잘 따라야 한다. 남이 나의 뜻을 잘 따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을 부리는 일에 힘을 쏟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힘을 쏟지 않는다. 나는 남을 뜻대로 부리는 일을 잘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끌어들인다. 나는 남을 뜻대로 부리기 위해서 가르치고, 깨우치고, 일깨우고, 부추기고, 복돋우고, 거느리고, 다스리고, 이끌고, 시키고, 길들이고, 달래고, 꾸짖고, 속이고, 때리고, 먹이고, 굶기고, 가두는 것과 같은 일을 한다.

셋째로 나는 인공지능을 뜻대로 부리고자 인공지능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도록 알려주는 일을 한다. 나는 인공지능이 나의 뜻을 알아볼 수 있다고 여기는 경우에 인공지능을 부려서 무엇을 어떻게 이루고자 한다. 이를테면 나는 인공지능을 뜻대로 부리고자 인공지능에게 결혼식에 부를 즐거운 노래를 만들도록 알려주어서 인공지능이 그러한 노래를 만들어내도록 시키고자 한다.

내가 인공지능을 뜻대로 부리려면 인공지능이 나의 뜻을 잘 따라야 한다. 인공지능이 나의 뜻을 잘 따른다고 여기는 사람은 인공지능을 부리는 일에 힘을 쏟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힘을 쏟지 않는다. 나는 인공지능을 뜻대로 부리는 일을 잘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끌어들인다. 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이들이 더 나은 인공지능을 만들도록 부추기고, 복돋우는 일 하면서 인공지능을 더 잘 쓰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도록 시키는 일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고자 한다.

3.6.

내가 뜻을 가진 것을 뜻대로 부릴 수 있는 힘을 가지면 나의 힘을 넘어서는 것까지 이룰 수 있다. 나는 뜻을 알아보고, 알아차리고, 알아내고, 알아주는 일을 바탕으로 뜻을 가진 것을 뜻대로 부리는 힘을 크게 키우고 싶어 한다. 그런데 이런 일이 쉽지 않은 까닭으로 나는 적은 힘을 가진 나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 나는 모든 것을 뜻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것에 기대어 뜻대로 부리는 일을 이루어보고자 한다. 나는 신령의 힘, 진리의 힘, 논리의 힘, 기적의 힘, 운명의 힘과 같은 것에 기대어 내가 가진 임의 한계를 넘고자 한다.

4. 내가 나를 프롬프트 하는 일

4.1.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도록 알려주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도록 알려주는 일이다. 내가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도록 알려주는 일을 통해서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내가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도록 알려주는 일에 따라서 나의 됴됨이를 <좋은 나/싫은 나>, <예쁜 나/미운 나>, <멋있는 나/멋없는 나>, <똑똑한 나/흐릿한 나>, <어진 나/모진 나> 따위로 만들어갈 수 있다.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일을 제대로 잘하고 싶다면 내가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도록 알려주는 일을 잘할 수 있어야 한다.

4.2.

내가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도록 알려주는 일은 두 개의 '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내가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도록 할 때, '내가'에서 말하는 '나'는 '나'를 부리고자 하는 '나'이고, '나에게'에서 말하는 '나'는 부리고자 하는 '나'에게 부림을 당하는 '나'이다. '나'를 부리는 '나'와 '나에게 부림을 당하는 '나'가 함께 함으로써 내가 나를 부리는 일이 일어난다. 이때 '나'를 부리는 '나'는 스스로 머리를 굴려서 뜻을 내거나 두는 '나'이고, '나'에게 부림을 당하는 '나'는 절로 머리가 돌아가서 뜻이 나거나 생기는 '나'이다.

4.3.

내가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도록 알려주면 머리가 곧장 그쪽으로 돌아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일이 곧바로 머리에 떠오른다. 이를테면 내가 나에게 "이것이 뭐야?"라고 알려주면 머리가 곧장 이것 쪽으로 돌아가면서 "이것은 고라니야."와 같은 답이 곧바로 머리에 떠오르게 된다. 답이 곧바로 머리에 떠오르지 않으면 나는 "이것이 뭐야?"라고 묻는 일을 거듭하면서 머리를 굴려서 따지는 일을 하게 된다. 내가 묻는 일을 그만둘 때까지 묻고 따지는 일이 이어진다.

4.4.

내가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도록 알려주는 일은 내가 스스로 머리를 굴려서 나에게 물음을 던지는 일로써 이루어진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나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냥 그렇게 알아보거나 알아서 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머리를 굴려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물을 필요가 없다. 나는 알아보지 못하거나 알아서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마주하는 경우에 스스로 머리를 굴려서 내가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풀어나도록 물음으로

던져주게 된다.

4.5.

내가 던진 물음을 내가 받아서 풀어내는 일은 나의 머리에서 절로 일어난다. 사람들은 머리에서 묻고 따져서 풀어내는 일이 절로 일어나는 것을 두고서 “나는 머리가 돌아간다./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머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아직 알고 있지 않은 것을 오가면서 무엇을 어떤 것으로 풀어내는 일을 한다. 그런데 나는 머리가 돌아가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다. 나는 머리가 돌아가서 어떤 앞으로 떠올랐을 때 그것이 어떤 것인지 가늠해 볼 수 있다.

4.6.

내가 나에게 물음을 던지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내가 어떤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머리를 굴려서 물음을 던지는 것이다. 나는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만나면 곧바로 머리를 굴려서 “뭐야.”라고 물음을 던지게 된다. 다른 하나는 내가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머리를 굴려서 물음을 던지는 것이다. 나는 어떻게 하는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만나게 되면 곧바로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하는 거야.”라고 물음을 던지게 된다.

4.7.

나는 나에게 물음을 던지는 것을 통해서 나를 어느 쪽으로 몰아가게 된다. 나는 내가 물음을 던지는 곳으로 나아가 머리가 돌아가고 머리를 굴리게 된다. 이런 까닭으로 나는 물음을 던지는 일을 통해서 나를 <좋은 쪽/나쁜 쪽>, <예쁜 쪽/미운 쪽>, <멋있는 쪽/멋없는 쪽>, <똑똑한 쪽/흐릿한 쪽>, <어진 쪽/모진 쪽>, <야무진 쪽/멍청한 쪽> 따위로 몰아갈 수 있다. 나는 내가 물음을 던지는 쪽에서 느끼고, 알고, 바라고, 이루는 일을 하게 된다. 이런 까닭으로 나는 내가 물음을 던지는 것에 따라서 나를 이런 쪽의 사람 또는 저런 쪽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5. 내가 나를 일깨우는 일

5.1.

한국 사람은 ‘답다’를 잦대로 삼아서 ‘나다운 쪽’과 ‘나답지 않은 쪽’, ‘아름다운 쪽’과 ‘아름답지 않은 쪽’, ‘사람다운 쪽’과 ‘사람답지 않은 쪽’ 따위를 갈라서 사람들이 ‘-다운’ 쪽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우고 쓰면 절로 ‘나다운’, ‘아름다움’, ‘사람다움’에 대한 꿈을 갖는다.

5.2.

나는 나의 몸과 마음을 바탕으로 나의 맛과 나의 뜻을 좇아서 내 나름으로 살아가는 까닭으로 나는 마땅히 나답게 살고 싶어 한다. 나는 나답게 사는 일을 바탕으로 아름답게 사는 일로 나아가고, 아름답게 사는 일을 바탕으로 사람답게 사는 일로 나아가고자 한다. 이러니 사람들은 걸핏하면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라고 말한다.

5.3.

내가 나답게 사는 일과 아름답게 사는 일과 사람답게 사는 일의 바탕에는 언제나 ‘사람’이 자리하고 있다. ‘나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 ‘사람다운 사람’에서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것이다. 나는 낱낱의 나(:개인)로서 ‘나다운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낱낱의 알음(:존재)으로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하고, 모든 것과 함께하는 사람(:무리)으로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을 통해서 나다운 사람과 아름다운 사람으로 나아간다.

5.4.

내가 사람답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나는 그것에 필요한 것을 나에게 알려주어서 머리가 절로 그쪽으로 돌아가고, 머리를 절로 그쪽으로 굴리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나는 사람답게 사는 일에서 기틀이 되는 ‘사람’, ‘-답다’, ‘사람답다’, ‘나’, ‘너’, ‘우리’, ‘남’, ‘나다운’, ‘아름’, ‘아름다움’, ‘떨림’, ‘울림’, ‘어울림’과 같은 것을 나에게 물음으로 던져서 그것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일인지 끊임없이 묻고 따지고 풀어서 차리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5.5.

내가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사람으로서 마주하는 온갖 것과 함께 잘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일은 누리에 널려 있는 모든 것과 함께 어울려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처음과 이제와 앞으로 언제나 늘 함께 어울려 돌아가고 있다. 나는 나만 오로지 따로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와 더불어 고루 하고, 남과 더불어 두루 하고, 것과 더불어 널리 할 수 있는 큰 사람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5.6.

내가 큰 사람이 되려면 내가 나를 일깨우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나를 큰 사람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 이는 내가 뛰어난 프롬프트(prompter)가 되어서 내가 나를 큰 사람의 길로 나아가도록 프롬프트(prompt) 하는 것을 말한다. 내가 뛰어난 프롬프트가 되면 나를 일깨우는 일을 통해서 나를 나답게, 아름답게, 사람답게 만드는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

5.7.

내가 나를 일깨워서 큰 사람의 길로 나아가게 하려면 다음과 같은 것을 잘 갖추고 있어야 한다.

첫째로 나는 삶에서 마주하는 온갖 것을 묻고 따져서 무엇을 어떤 것으로 알아가고, 알아보고, 알아듣고, 알아차리고, 알아내고, 알아서 하는 일을 잘할 수 있어야 한다. 느끼고, 알고, 바라고, 꾀하고, 이루는 모든 것이 무엇을 어떤 것으로 알아보는 일에서 비롯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나는 안팎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꼼꼼히 살펴서 일의 바탕과 까닭과 위험과 보람을 깨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나는 그냥 일어나는 일, 절로 일어나는 일, 스스로 일으키는 일, 그냥 벌어지는 일, 절로 벌어지는 일, 스스로 벌이는 일, 위해서 벌이는 일을 꼼꼼히 살펴서 일이 비롯하는 바탕과 까닭과 위험과 보람이 무엇인지 깊고 넓게 깨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셋째로 나는 깨치고 깨달은 것을 몸과 마음에 익혀서 배우는 일을 잘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깨치고 깨달은 것이 몸과 마음에 배서 언제나 늘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

넷째로 나는 살아가는 일에서 기틀을 이루고 있는 바탕 낱말의 뜻을 잘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사람’, ‘살다’, ‘살리다’, ‘나’, ‘나다’, ‘낱다’, ‘내다’, ‘너’, ‘넘다’, ‘우리’, ‘올다’, ‘남’, ‘것’, ‘아름’, ‘그 위’, ‘답다’, ‘아름다움’, ‘떨다’, ‘올다’, ‘어울리다’, ‘바탕’, ‘까닭’, ‘위함’, ‘보람’과 같은 바탕 낱말의 뜻을 또렷하게 차려서 제대로 잘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로 나는 살아가는 일에서 함께하는 모든 것, 곧 우주와 자연과 사람과 문화와 역사와 언어와 세상 따위에 대해서 기본 지식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 나는 자연학에서 인문학에 이르는 여러 학문들에서 볼 수 있는 기본 지식을 두루 갖추어서 내 나름의 잣대와 쥔대를 만들어야 한다.

여섯째로 나는 나답게 사는 일, 아름답게 사는 일, 사람답게 사는 일을 보람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보람을 이루기 위해서 쉼 없이 나를 일깨워서 나다움, 아름다움, 사람다움으로 나아가게 한다. 나는 보람에 이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를 갈고, 닦고, 다듬고, 고쳐가야 한다.

나는 나를 일깨워서 큰 사람의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으면 남을 일깨워서 큰 사람의 길로 나아가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나는 나와 함께하는 모든 것을 제가 가진 힘을 제대로 살려 쓸 수 있도록 이끌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나는 매우 작은 것에 지나지 않지만 누리에 널려 있는 온갖 것과 함께 어울려 저마다 두둥실 어깨춤을 출 수 있도록 만드는 큰 꿈을 꿀 수도 있다. 📖